

8-24-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14-18

말씀제목: 2000 년 동안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데려오는 하나님

2000 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후 예수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서 잠들어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혼과 영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영과 혼을 연합시키셔서 그들의 몸을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몸을 산채로 변화시키시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들었던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인에 대하여 말할 때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위대한 신비의 그림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런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엡 5:31-32)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난 이천 년 동안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그리스도와 혼인시키시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왕국을 땅에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신부들로 하여금 그의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며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딤후 2:12)

예수께서도 그의 므나 비유를 통하여 그의 왕국에서 다스릴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므나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주신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 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눅 19:12,13,16,17)

선지자 에녹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되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담의 칠 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유 1:14-15)

선지자 스카라도 아마겟돈 전쟁 때 땅에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웃시아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슥 14:4-5)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 그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계 19:11-14)

세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앞으로 영원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20-23)

주님께서 지난 이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어 거듭나게 하셔서 자신의 신부들로 삼으신 것은 하늘과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돕는 배필들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된 지금이야말로 임박한 대 환란과 그 직전에 있게 되는 휴거와, 대 환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루시는 뜻을 깨닫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분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